

사무엘상 31. 위기에 처한 다윗을 구하시는 하나님 (삼상 29 장 1-11 절)

들어가기

지난 시간 블레셋 사람들은 연합군을 만들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움을 청하였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려, 위기의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하며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무렵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공격해야만 할 위기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다윗의 지혜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 오직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곧 오늘 우리는 지난 장과 오늘 사건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은혜로운 것인지를 발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출전하였습니다. (1-2 절)

1) 블레셋의 모든 군대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_____ ' 에 모였습니다. (1 절)

- ‘아벡’ 은 잇사갈 지파에 속한 땅
- 그런데! 블레셋은 이전에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 ‘아벡’에 군사들을 집결시켰음!
(삼상 4 장 2 절)
- 그럼 왜 블레셋은 이곳을 다시 선택했을까?

✧ 삼상 4 장 2 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될 듯!

- 이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대패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고,
-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고, 엘리는 전쟁 패배와 아들의 소식, 언약궤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고 죽었음!

✧ 곧 블레셋은 지난 날 이곳에서의 승리를 기억하며, 이 곳을 이스라엘의 약점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아닐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할 한가지는 악한 사탄은 항상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고, 그곳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의 약한 부분을 바로 보고 깨달아서 반복적인 사탄의 공격에 쉽게 넘어지지 말고, 항상 깨어 경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과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2) 이때 다윗은 블레셋 군대의 제일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있었습니다. (2 절)

- 여기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블레셋의 다섯 부족들 (곧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을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들을 가리킨 것.

- 그리고 그들의 명령에 따라 수백, 수천이 움직였다는 것은 곧 그들 밑에 여러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병력을 관리하며 당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얼마나 잘 정비되고 조직되어 있었는지를 알게 함.
- 그런데 이때 다윗은 아기스와 함께 군대의 제일 뒤에 있었다는 것!
 - ✧ 아마도 이때 다윗은 전투가 시작될 때 앞장서서 참여하기 보다는 후군이 되어 전투를 돕는 역할을 하려고 했던 듯.
 - ✧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2. 그런데 이때 아기스를 제외한 블레셋의 방백들은 다윗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3-5 절)

- 블레셋 방백들의 말을 주목 :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 여기서 저들이 다윗 일행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말하지 않고, 굳이 ‘히브리 사람’이라 표현한 것은 저들이 다윗 일행에 대해 매우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음을 의미!
 - 참고: 사무엘서에서 ‘히브리 사람’이란 표현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음.
 - ✧ 예: 삼상 13 장 6-7 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어라’

1) 그러나 아기스는 끝까지 다윗을 변호하며, 저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3 절)

- 아기스가 다윗을 변호하며 신임하는 이유 3 가지.
 -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 -> 오래 전부터 다윗은 사울의 적이 되어있다는 것!
 - ‘나와 함께 있는 지 여러 날, 여러 해’ -> 다윗이 자신의 충실한 신하로 오래됨을 강조!
-> 그러나 실제로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한 기간은 현재 ‘1년 4개월’ 밖에 되지 않음.
 -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음’ -> 아기스는 이때까지도 다윗이 자신을 속이고 이스라엘의 적들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음이 확실.

2) 블레셋 방백들은 이런 아기스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참전을 거절하였습니다. (4-7 절)

- 주목 : 이때 블레셋 방백들은 아기스에게 크게 노했다는 것!
 - 아마도 아기스가 자신들의 말보다 다윗을 더 신뢰하고 두둔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 그래서 저들은 아예 다윗을 아기스가 정한 처소 곧 시글락으로 다시 돌려 보낼 것을 요구!
- 아기스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다윗을 끝까지 거절하게 된 이유?
 - 다윗이 사울과 화해하기 위해 전쟁터에서 자신들의 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
 - 그 근거는 바로 다윗은 오래 전 가드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영웅이기 때문!

3) 결국 아기스는 방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6-7 절)

- 주목 1. 아기스는 ‘여호와와 살아계심’을 두고 다윗에게 말했다는 것.
 - 그러나 이것이 아기스가 하나님을 믿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아마도 혹시 자신을 의심하고 받아주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 실망했을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 히브리적 표현을 써서 다윗을 위로한 것일 뿐.
 - 아무튼 이런 표현 속에서 아기스는 진실로 다윗이 자신의 충실한 신하가 되었다 믿고 있었음을 다시 확인.
- 주목 2. 아기스는 다윗이 자신과 함께 한 기간 동안 어떤 악도 보지 못했다는 것!
 - 실제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아기스에게 거짓을 말한 것 이외에는 그 어떤 악한 일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 곧 다윗이 비록 이방 땅으로 피신하여 살기 위해 실수를 저지르기는 했으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항상 신중하고 경건하게 생활했다는 것을 증명.
- 주목 3. 아기스는 다윗에게 평안을 빌어주며 돌아가게 하였다는 것!
 - 곧 아기스는 진심으로 다윗을 걱정했고, 지켜주려 했다는 사실.
- 주목 4. 아기스는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고 부탁.
 - 문자적으로는 '장관들의 눈에 악함이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란 뜻
 - 이런 당부는 곧 아기스가 다윗을 앞으로도 계속 자신의 '사역자'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3. 그런데 이때 다윗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아기스에게 항변하였습니다. (8 절)

- 주목 : 다윗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내 주(아기스)의 원수(사울)와 싸우지 못하게 하느냐?’ 고 아기스에게 항변했다는 것!
 - 그럼 이런 다윗의 말은 진심인가? -> 당연히 아니다!
 - 그럼 왜 다윗은 이런 말을 했을까?
 - ☆ 아마도 자신을 의심하는 블레셋 방백들로부터 자기 일행을 보호하기 위함.
 - ☆ 또한 자신을 돌아가라고 하는 아기스의 말이 진심인지? 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닐까?

4. 이에 아기스는 다윗을 진정시키며, 내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 시글론으로 빨리 다시 돌아갈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9-11 절)

- 1) 아기스는 다윗이 ‘하나님의 전령’ 같이 자신에게 선한 사람이라 인정해 주었습니다.(9 절)
 - ‘하나님의 전령’ 이란 말은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하는 말.

- 아기스가 이 같은 표현을 쓴 이유는, 곧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는 항상 선하다는 일반적인 관점을 근거로 다윗이 자신에게 항상 의롭고 선했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려 한 것.

■ 주목 : 그런데 이때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른 새벽에 일어나 떠나라고 명령하였다는 것!

- 이미 시작된 블레셋 사람들의 의심으로 다윗이 더 크게 휩쓸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
- 아침이 되어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

2) 결국 다윗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 극적으로 아기스의 명령에 따라 블레셋 시글락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른 아침 아백을 빠져 나온 다윗과 그의 병사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시글락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여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의 선하신 뜻과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됩시다.

✚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로 묵상했거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 중보기도 나눔.